

[로스쿨 소식]

로스쿨 신입생 배출 10개 대학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대... -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10개 대학은 서울대(3210명), 고려대(2414명), 연세대(2346명), 이화여대(1101명), 성균관대(1001명), 한양대(896명) 경희대(428명), 서강대(397명), 한국외국어대(390명), 부산대(372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른바 1000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이었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2009년~2016년까지 8년간 25개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입학생은 1만6554명이었다. 대학 전공별로는 법학계열 전공자(45.16%)가 비(非)법학 전공자(54.84%) 보다 적었다.

법학계열 전공자 비율은 2009년 34.4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55.4%까지 늘었다가 2014년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에는 36.5%로 하락했다.

법학계열 전공자 비율이 감소한 것이유는 로스쿨이 도입된 25개 대학에서 2009년 이후 법대가 폐지되면서 법학계열 졸업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非)법학 전공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전공은 사회계열 14.01%, 상경계열 13.99%, 인문계열 10.95% 등의 순이었다. 공학계열은 7.19%, 자연계열은 2.68%였다.

자교 출신 입학생 비율도 평균 25.5%였다. 전문가격을 가진 입학생들도 많았다. 2010~2016년 입학생 1만4천556명(일부 로스쿨 제외) 중 회계사는 133명, 의사와 약사·수의사는 119명이었다. 변리사는 52명, 세무사 33명, 노무사 33명이었으며 공무원 출신은 125명이었다.

기초 소양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 학문의 동종교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입학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6~28세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23~25세(28.1%), 29~31세(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